POSTING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Incheon Metropolitan City Public Health Policy Institute

2019 Vol.4

Incheon
Metropolitan City
Public Health
Policy Institute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POSTING

발행일	2019. 12.
발행호	Vol.4
발행인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편집인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발행처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홈페이지	http://www.ippi.or.kr
전화	032-580-6392
디자인 및 제작	㈜032디자인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CONTENT

4 [공공보건의료 Issue]
국내 장애인 보건의료 현황과 과제

6 [Focus on 인천]
인천광역시 장애인 현황과 건강 및 재활의료 인프라

10 [공공의료 Alive]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장용원 원장 인터뷰

12 [지원단 주요일정]
추진성과·향후계획

국내 장애인 보건의료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호승희 과장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보건관리서비스를 확대시키고 장애인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며, 지역사회중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은 일차장애와 함께 이차장애의 발생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건강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헌법 36조 3항에 명시되어 있고,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1항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건강은 지금까지 그 중요성에 비해 간과되어 왔습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건강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취약한 건강상태로 인해 만성질환이 조기에 발병할 수 있으며, 장애 유형과 정도 등의 장애 특성, 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이차적인 장애 및 동반질환 등의 건강문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은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욕구가 높지만 여러 제한으로 인해 미충족 욕구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보건의료제도와 법률의 시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건강문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이 반영되어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 중점과제 중 하나로 '장애인 건강'을 다루고 있으며 장애인 건강통계 강화,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등 8가지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

계획(2018~2022)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 완화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을 제시하고 관련 과제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2월에 제정되었으며 2017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운영을 통해 장애인의 포괄적이고 지속적 건강관리를 위한 기본관리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 전달체계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건강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체계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장애인 건강증진사업,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건강교육 및 상담'이 포함됩니다. 이 일환으로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 거주 지역 내 의사가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였으며, 장애친화 검진기관을 18년에 8개소에 이어 19년에는 17개소까지 확대 지정하여 비장애인 및 장애유형 간 국가건강검진률 격차 해소 및 예방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공성에 기반한 전문재활 및 집중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을 계획하고,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2017년 10월부터 2018년 말까지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을 통해 재활의료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환자 기능 회복 및 조기 사회복귀를 기대하고 있으며 2020년 본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중심의 포괄적 평생건강관리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생활터 내에서의 건강 증진, 건강 역량 및 소양 강화 등 예방적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에 대한 자가관리 능력 배양이 선행되어 생애주기별 발생하는 건강 관련 요구와 변화, 건강문제를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유지 및 증진,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개인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포괄적 서비스가 개인특성 및 삶의 공간에 따라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평생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 현황과 건강 및 재활의료 인프라

2017년 12월부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권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체계 확립과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 건강권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 2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보건의료 관련 영역에서는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접근성 강화'와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마련'을 중점과제로 하여 중증장애아동지원을 위한 권역별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설립 및 장애인 주치의와 장애친화 검진기관 도입을 위한 제도 마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장애인 건강에 관한 정책 흐름 가운데 2018년도 말 인천광역시 등록 장애인 인구 비율은 4.8%로 인천광역시 장애인 수와 비율은 2015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장애인의 건강 특성과 장애인 건강과 재활 인프라 현황을 알아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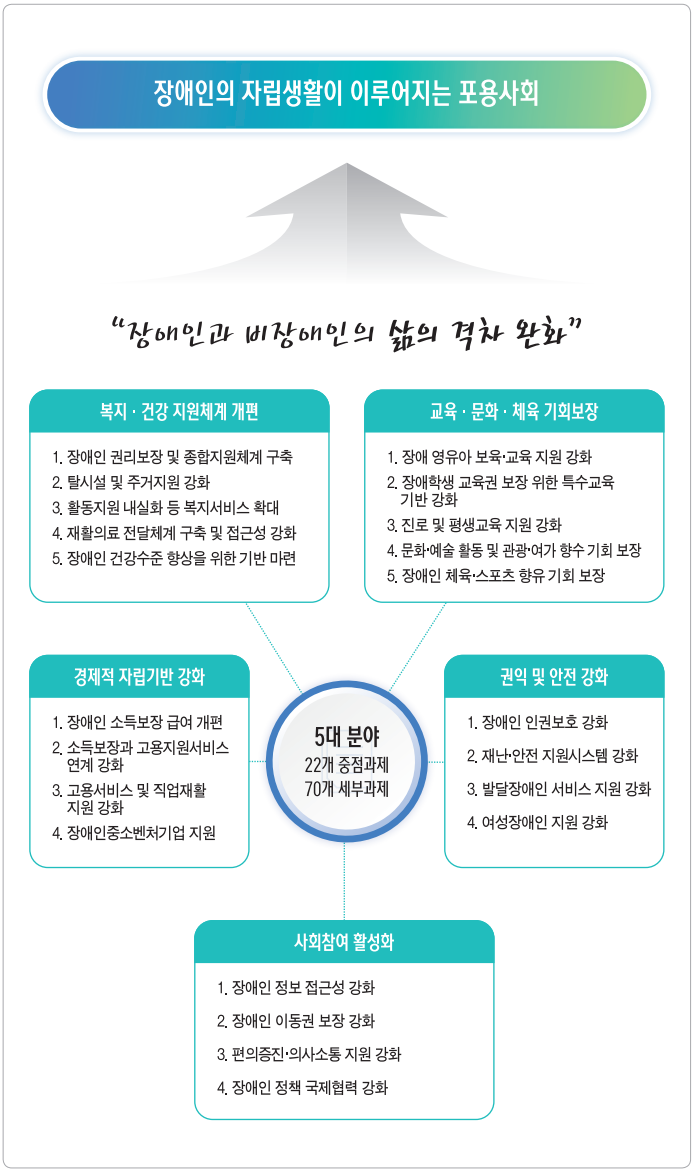


그림 1.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인천광역시 장애인 현황과 건강행태

2018년 말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등록 장애인구 수는 약 142천명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우리나라 장애인의 장애유형은 총 15개로 구분하고 있으며 장애중증도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중증 1~3급)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종전 경증 4~6급)으로 나뉩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 중 49.5%가 지체장애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37.2%입니다. 전국 장애인구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장애인구의 특성 상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약 50%로 높은 편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구 또한 노인인구가 42.4%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도서지역에서 두드러집니다. 강화군과 옹진군의 노년기 장애인구의 비율은 각각 57.3%와 52.2%로 다른 군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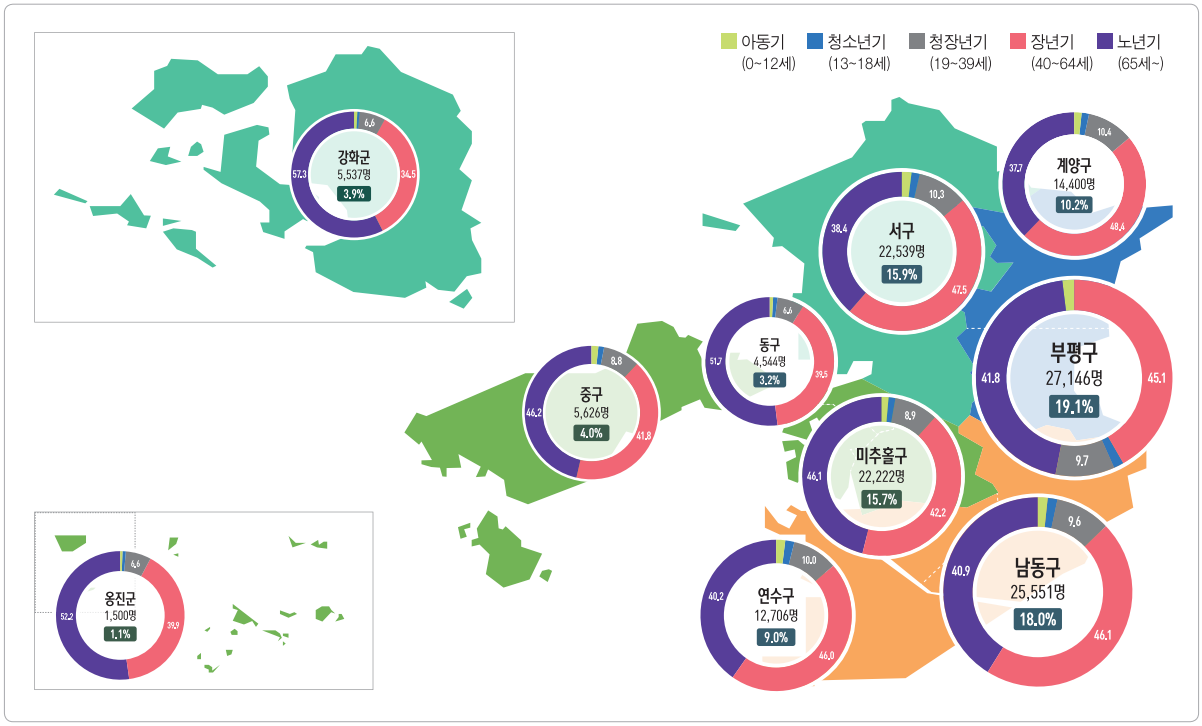


그림 2. 인천광역시 군구별·연령대별 장애인 분포 (※ 출처: 보건복지부(2018), 장애인현황)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와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통해 인천광역시 장애인구와 전체인구의 건강행태를 알아보았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의 흡연율과 월간음주율은 각각 20.9%와 32.6%로 인천광역시 전체인구의 흡연율과 월간음주율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장애인구의 고위험음주율은 전체인구의 고위험음주율인 20.4%보다 26.6%p 높은 47.0%로 장애인의 고위험 음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 결과는 조사수행기관이 다르고 자료의 형태와 표준화 방법이 동일하지 않아 완전한 비교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6년 인천광역시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67.0%로 7대 광역시 중에서는 2번째로 높아 양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전체인구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인 79.6%보다는 낮았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의료 인프라 현황

먼저 장애인건강권법의 장애인 보건관리사업의 주요사업인 장애인 건강주치의와 장애친화 건강검진사업의 인천광역시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란 중증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 중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등록신청한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하여 지속적, 포괄적 관리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 7월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는 총 11개 병원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장애인 보건관리사업으로는 장애친화 건강검진 사업이 있습니다. 2019년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으로 선정되어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검진을 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천대길병원 치과센터에서 인천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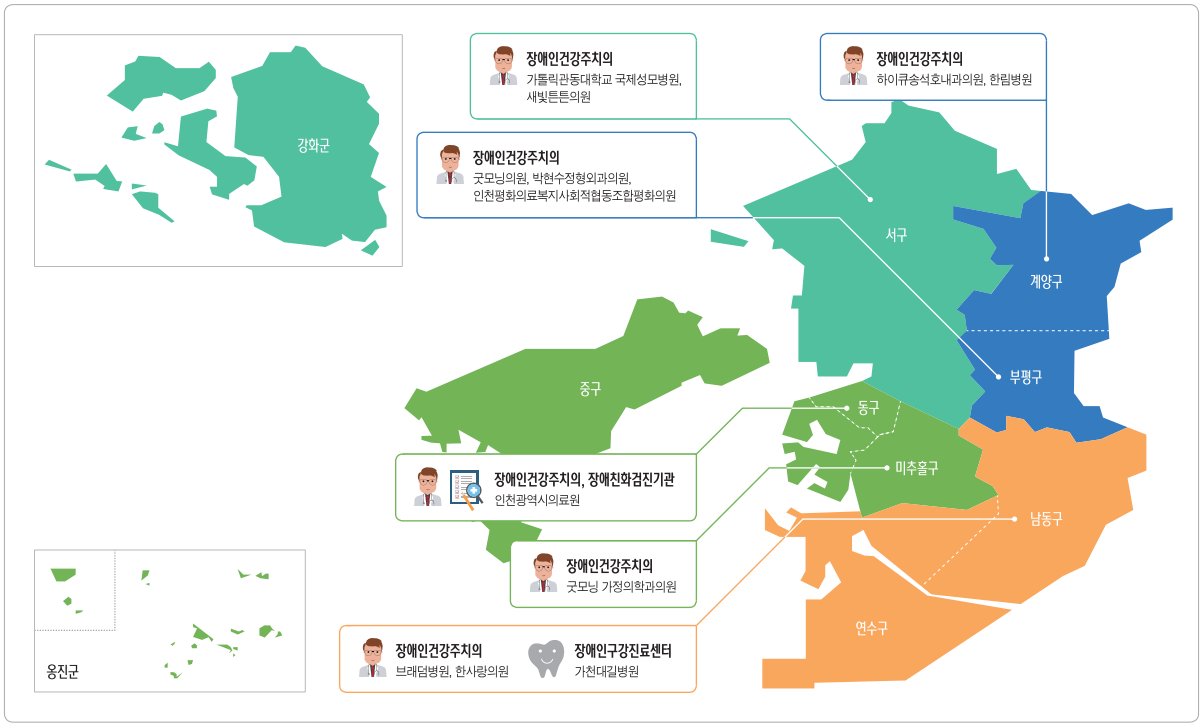


그림 3. 인천광역시 장애인 보건관리사업 운영 현황

권역재활병원은 장애로 인한 2차 장애와 후유질환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집중재활 의료기관이며 지역별 균형적인 분포와 재활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재활의료 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해 6개의 권역별로 재활병원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인천광역시 소재 경인의료재활센터가 처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표 1. 전국 권역재활병원 현황

구분	경인	호남	충청	강원	영남	제주	경북
기관명	경인의료 재활센터병원	호남권역 재활병원	대전충청권역 의료재활센터	강원도 재활병원	영남권역 재활병원	제주권역 재활병원	대구경북권역 재활병원
병상수	150병상	156병상	152병상	165병상	150병상	150병상	150병상
선정 년도	2006년	2008년	2008년	2006년	2008년	2007년	2015년
운영 기관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	조선대학교	충남대학교 병원	강원대학교 병원	양산부산 대학교병원	서귀포 의료원	경북대학교 병원

※ 가칭 대구경북권역 재활병원은 2015년 공모선정을 통해, 현재 건립 중으로 2019년 개원 예정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의료기관 기능재정립과 병원의 전문화를 위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의료기관의 환자구성비, 진료량, 필수 진료과목 등을 기준으로 전문병원을 선정합니다. 지정분야는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재활 등이 있으며 인천광역시에서는 남동구에 위치한 미추홀재활전문병원이 재활의학 전문병원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이나 사고 후 초기 집중재활을 통해 빠른 신체적 사회적 회복을 위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 인천브래덤 병원이 선정되어 양질의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장애인의 현황과 건강 및 재활의료 인프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발간한 이슈페이퍼『인천광역시 취약계층에 관한 연구 장애인의 건강과 재활의료를 중심으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장용원 원장

인터뷰

+

인천 공공의료기관 알리기

본 코너에서는
장애인 재활치료 및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을 소개합니다.

Q.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2003년 2월에 발표된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2003-2007년)중 장애인 복지 향상 대책의 일환으로 권역별 재활병원 설립이 추진되었습니다. 이어 2005년 12월에 수립된 공공보건의료확충 종합대책에서 부족한 재활서비스 공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경기·인천,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등의 6개 권역에 재활병원이 지정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대학병원을 제외하고는 적절한 수준의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상당히 부족하였습니다. 저희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은 2006년도에 처음으로 권역별 재활병원으로 지정되었으며 2010년 9월에 개원하여 내년이면 10주년에 이르게 됩니다.

Q.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이 인천시민의 재활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수행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저희는 권역별 재활병원으로서 분야별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과 아울러 공공재활 프로그램 제공, 지역사회의 재활사업 연계

및 협력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공공재활 프로그램은 장애 발생 후 조기에 사회복귀를 유도하는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총괄하고 국립재활원에서 세부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권역재활병원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 제공방법은 병원 단독으로 또는 보건소나 장애인 복지관 등의 권역 협의체와 연계하기도 합니다. 이 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영(예산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 저희 병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공재활 프로그램으로는 조기사회복귀지원, 소아청소년 재활 프로그램, 건강증진(건강관리)프로그램, 방문재활 프로그램, 여성장애인 모성보건 지원 등이 있습니다.

Q. 특히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의 경우 사회복귀, 방문재활,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공공재활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운영상의 어려운 점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여러 공공재활 프로그램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방문재활 프로그램입니다. 방문재활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힘든 장애인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재활치료 또는 건강관리 서비스, 안전 및 감염관리 교육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공공재활 사업비 부족으로 대상자 수와 프로그램 제공 기간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Q. 위에서 언급한 사업 수행의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천시와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 방문재활 프로그램 사업 수행에 있어 어려움은 모든 기관의 어려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훈병원의 모델을 참고할 수 있는데 보훈병원의 경우, 보훈공단으로부터 방문재활치료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 이를 바탕으로 방문전담팀을 운영하여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려면 보훈공단보다 더 큰 범주인 건강보험공단의 결정이 필요하므로 단기간 내에는 해결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인천시에서 방문재활 프로그램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비 예산을 포함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지역사회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이 인천시민의 재활서비스 제공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의 추진계획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최근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 및 기관 지정,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 등 재활시스템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병원은 기존대로 재활치료 서비스와 공공재활 프로그램 제공 위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속하지만 의료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으로 되어 있어 이러한 장애인 관련 사업들을 수행하는데에 있어 제한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향후 이런 변화된 환경을 병원 직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필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병원 시스템에 적용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Q. 재활 영역의 경우 민간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현재 부족한 공공부문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의료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재활영역에서 고려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첫째, 기본방향이 환자,장애인 시스템으로 구축되고 운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주치의 제도의 경우 도입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장애인에게는 의료기관 접근성, 비용부담이 문제가 되고 의료기관은 진료 투입시간 대비 저수가 문제가 있어 실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향후 재활은 좀 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장애인들이 가정에서부터 접근이 용이하도록 지역사회 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복지관 혹은 보건소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여 재정비하고 체계적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추진성과

2019년 인천 진료정보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관계자들이 50여명의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지역 내 의료 연속성 보장을 위한 진료정보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제목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사회보장정보원 진료정보교류사업추진단에서 진료정보교류사업과 주요 서비스를 안내하고 보건복지부의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성모병원(상급종합병원)과 참조은병원(종합병원)은 진료정보교류를 위한 시스템 구축 현황과 운영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 **일 시** 2019년 10월 2일(수) 14:00~16:00 ■ **장 소** 인천시청 장미홀

인천광역시 공공의료기관 대상 공공의료사업 기획력 강화 교육

인천 내 공공의료기관 종사자의 공공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고, 공공의료사업 기획 역량을 강화하고자 국가 보건의료 정책 소개, 보건-의료-복지 연계전략 수립, 자료수집 및 현황 진단 등의 내용으로 강의 및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 **일 시** 2019년 10월 25일(금) 09:30~16:30 ■ **장 소** 가천의대 5층 강의실 및 6층 멀티미디어실

2019년 인천 공공보건의료포럼 개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관내 보건 분야 지원단 및 센터와 협력하여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분야별 관리체계 구축 방안 모색' 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올해 새롭게 인천 보건 분야 지원단 및 센터에 참여한 관내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질환 센터의 적극적인 참여로 행사를 성황리에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날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공보건의료 발전종합대책으로 바라본 필수의료와 골든타임에 대한 강연과 인천소방본부, 권역 응급·심뇌혈관질환·외상 센터 관계자 발표 및 패널토론이 이어졌습니다.

■ **일 시** 2019년 10월 31일(목) 13:30~17:00 ■ **장 소** 인천시청 대회의실

2019년 제4차 타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및 재단 연석회의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주관으로 운영된 제4차 연석회의에서는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및 각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재단이 모여 '시도 보건의료기술지원단 간 조정 및 연계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역할과 사업방향', '2020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국비지원 사업지침 개정안 및 지원단 실무협의회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일 시** 2019년 11월 21일(목) 14:00 ~ 22일(금) 10:30 ■ **장 소** 창원경상대병원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미래 포럼「인천 공공보건의료, 새로운 미래를 만나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출범 이후 5년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천시의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지원단의 방향과 역할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1부에서는 지원단의 발자취 및 2019년 성과를 발표하고, 2부에서는 '인천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강의 및 패널토론이 이어졌습니다.

■ **일 시** 2019년 12월 5일(목) 13:30~17:00 ■ **장 소** 인천문화예술회관 1층 중회의실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협의체 1차 회의

실효성 있는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인천시, 시의원, 공공보건의료기관장, 필수의료 관련 사업지원단 및 센터 기관장,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공보건의료 협의체'가 구성되었습니다. 1차 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의 필수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지표를 검토하고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현황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일 시** 2019년 12월 11일(수) 15:00~17:00 ■ **장 소** 인천시청 지하1층 장미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향후계획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원

인천 내 10개 군·구 보건소와 인천시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와 2차년도 시행계획을 2월까지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2019년 11월에 배포된 계획서 작성 지침과 절차에 준하여 계획 수립 안내 교육, 검토 의견서 작성 및 환류 등을 중심으로 한 정책·기술지원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기 간** 2019년 11월 말 ~ 2020년 2월 말
- **참석대상** 인천시 및 10개 군·구 보건소 관계자

2019년 하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2019년 사업결과를 보고 하고, 2020년 사업계획 및 운영에 필요한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일 시** 2020년 1월 초
- **장 소** 인천의료원 행정동3층 회의실

2020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및 의료계획 수립 기술지원

인천시와 인천시 소재 공공의료기관이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 흐름과 인천시의 공공보건의료 중장기 정책방향을 아우르는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및 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일 시** 2020년 1월~3월
- **지원대상** 인천시 및 인천시 소재 공공의료기관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협의체 2·3차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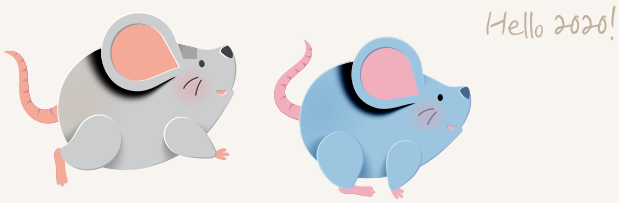
공공보건의료 협의체 2차 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중장기 정책방향의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 시행과제 선정 결과를 논의하고, 3차 회의에서는 최종 추진 방향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 **일 시** 2020년 2월~3월
- **장 소** 인천시청

감사합니다!

올해 저희 지원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보다 유익하고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새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일동 -



IPPI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Incheon Metropolitan City Public Health Policy Institute